

숨은그림찾기 <154>



찾아보세요 송사리, 은행잎, 뭇, 스펀, A자, 서둘러, 바늘, 펜촉, 갈매기

35-23-36 그리고 49!

짧은 남자가 여자를 소개 받게 됐다. 소개해 주는 이로부터 그 여자의 신체 조건을 듣게 됐다. "가슴 35.", "아아~!" "허리 23.", "카하~!" "허프 36.", "오~예!" "그리고 49.", "49? 그건 뭐지?" "응 응 그 여자 나이."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에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오늘의 유머

▲마누라와 처제

맥주병을 마누라라고 부르는 남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환자 분 맥주병을 보고 맥주병이라고 하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맥주병을 들고 와 물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맥주병입니다." "오.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남자가 퇴원 수속을 하고 나오다 보니 쓰레기통 옆에 소주병 하나가 있었다. 그걸 본 남자가 말했다. "아니, 처제가 여기 웬일이야?"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000년 12월10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2000년 12월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증서, 금메달과 함께 12억원 상당의 상금을 받고 있다.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벨상 수상을 위한 로비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에 15억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벨상 로비설이 흘러나오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저지' 운동을 위해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촛국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벨위원회 측은 "이는 매우 무례하며 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며 "오히려 김대중의 정치적 반대자 등으로부터 상을 주면 안된다는 로비가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일생의 투쟁과 평화를 위한 노력의 공로로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기삼 씨의 노벨평화상 로비 공작설 주장 등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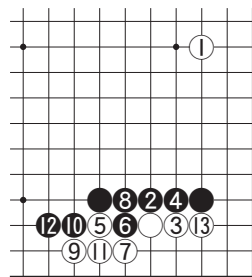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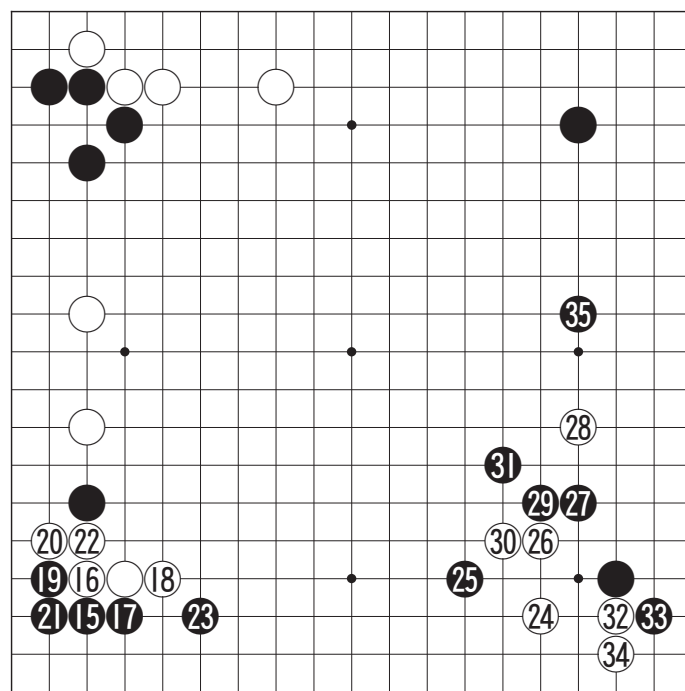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2연패와 설욕전

페어부 결승 2보(15~35)

白 함영우·송예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참고도>

페어부는 전국체전에 바둑종목이 참가하면서부터 전담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작년 88회 대회 때는 전남의 홍석의, 김지은 조가 역시 경기도의 이용희, 이선아 조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에 선배들의 뒤를 이어 함영우, 송예슬 조는 2연패에 도전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오창석, 이수빈 조는 설욕전이 되는 셈이다. 흑 15는 예상된 점입이며 이렇게 되면 23까지는 예상된 정석 진행이다. 다음 백 24로 낮게 걸쳐간 것이 실리취향이다. 흑 25로 한간높은 협공을 한 것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협공이다. 이때 전남팀은 즉각 백 26으로 뛰어 나갔는데 이 수로는 최근 '참고도'의 백 1로 갈라치는 수가 프로들의 실전에서 많이 두어지고 있다. 흑 2에는 13까지가 예상된다. 실전의 백 34까지도 정석인데 흑 35로 전투가 개시되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10일(음 11월 13일 甲申)

- 36년생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해는 없으리라. 48년생 가슴이 높아지면 먹을 것이 없구나. 60년생 건강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72년생 구슬수에 오르니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84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소식 온다. 행운의 숫자 : 02,35
37년생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49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6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73년생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85년생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4,27
38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50년생 병은 작을 때 잡아라. 62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74년생 사소한 연정이 있으나 예정은 새롭다. 행운의 숫자 : 05,33
39년생 산 넘어 산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51년생 세상은 어려워지만 마음은 편하다. 63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75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을 늦추라. 행운의 숫자 : 08,45
40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나 쓸 곳은 바로 생긴다. 52년생 사비로 휘말리니 결에도 가지마라. 64년생 외부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편안하다. 76년생 외출을 삼가 하라. 행운의 숫자 : 10,26
41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라. 53년생 자신의 우가를 물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65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새겨보라. 77년생 성장과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22,27
42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한번 점검하라. 54년생 급이아행 격이니 빛이 나지 않는다. 66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 있게 생활하라. 78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공로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 행운의 숫자 : 06,26
43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열 사람을 조심하라. 55년생 대장에 이상이 있을 수다. 67년생 상대보다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79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나쁜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7,29
44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56년생 생각지도 않은 큰 소비가 생긴다. 68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전후를 살펴가라. 80년생 세상이 급변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행운의 숫자 : 09,36
45년생 어려움을 다쳐도 지혜는 생깁니다. 57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69년생 어려지도 지리지도 못하니 형국에 빠진다. 81년생 자신을 모함 고자질하는 수하인이 사투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3,25
46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함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58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70년생 전쟁은 치열하니 군량미가 없는 형국이니 안락가를 뽐나. 82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일을 시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40
47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59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독은 기대하라. 71년생 한 시가 바쁘니 시간을 아껴 써라. 83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9,37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굿모닝 잉글리쉬 <1207>

It's worth a shot 한번 해 볼만도 하지

A : This door has been jammed shut for a year now. B : What can we do to break the door down? A : I don't know. B : I've never tried that before. A : Me neither, but it's worth a shot. A : 이 문은 지금까지 일 년 동안 꽂잠겨있어 꿈쩍도 하지 않아. B : 그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A : 모르겠는 걸 B : 전에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 A :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한번 해 볼만도 해. * jammed : 움직이지 않은, 꿈쩍도 하지 않은 * shut : 막힌, 끼인 * break down : 부서버리다, 열다 * It's worth ~ =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07>

コヒでもどう? 커피라도 어때요?

A : コヒでもどう? B : それはいい. A : 気分轉換には熱いコヒが一番ですよ. B : 僕、熱いものは苦手です。少し冷たいぐらいがちょうどいいです. A : 커피라도 어때요? B : 그거 좋군요. A : 기분전환에는 뜨거운 커피가 제일입니다. B : 저는 뜨거운 것은 익숙지 않아서 조금 식은 정도가 딱 맞습니다. 苦手(にがて) : 다루기 어렵고 익숙지 않은~ ちょうどいい : 가장 적당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284>

你呢?

당신은 어때요?

A: 老師，您好! Lǎoshī, nín hǎo! 리오스, 님 하교! B: 你好! Nǐ hǎo! 니 하오! A: 您身体好吗? Nín shēntǐ hǎo ma? 님 쉰티 하오 마? B: 很好，你呢? Hěn hǎo, nǐ ne? 험 하오, 니 너? A: 선생님, 안녕하세요! B: 안녕! A: 건강하십니까? B: 매우 좋습니다. 저는 야터니? 老師 [Lǎoshī] 선생님 身體 [Shēntǐ] 몸, 신체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924>

萬波息笛(만파식적) 일만 만, 물결 파, 쉼 식, 피리 적

만파식적(萬波息笛)은 신라(新羅) 신문왕(神文王) 때의 신기(神奇)한 피리로, 이것을 불면 나라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한다. 신라 31대 신문왕(神文王) 때 동해(東海) 가운데 섬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왔다. 일관(日官) 김춘집(金春實)이 접을 치고 말하였다. '대왕의 아버지께서 용(龍)이 되었고, 김유신(金庾信)이 현신이 되어 성을 지킬 보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왕이 사자를 시켜 그 산을 살펴보니, 거북의 머리처럼 생긴 산에 대나무 하나가 있는데 낮에는 갈라져서 돌이었다가 밤에는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마침 왕에게 용 한 마리가 검은 옥대(玉帶)를 바쳤다. 왕이 용에게 산의 대나무에 대하여 물으니, 용이 대답하길,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란 물건은 합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니, 성왕(聖王)께서는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대궐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敵兵)이 물러가고 병이 낫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